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덕에 크게 도약”

이정후의 존재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MLB닷컴은 29일(한국 시간) '특정 포지션에서 큰 도약을 이룬 7개 팀'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 시즌 팀의 약점으로 꼽혔던 포지션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선수 7명을 꼽아 소개했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 중견수 자리에서 약점을 지웠다는 평가다.

MLB닷컴은 이정후와 함께 시카고 컵스의 포수 카슨 켈리, 탬파베이 레이스의 중견수 조니 드루카, 캐머런 마이스너,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1루수 폴 골드슈미트, 보스턴 레드삭스의 2루수 크리스티안 캄벨,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2루수 가브리엘 아리아스와 대니얼 슈니먼, 애슬레틱스의 유격수 제이콥 월슨을 꼽았다.

이 매체는 “지난 시즌에는 이정후가 MLB에서 어떤 선수가 될지 가능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부상으로 이

MLB닷컴 ‘약점 지웠다’ 평가

“이정후에게 기억에 남는 시즌 될 것”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4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 1회 말 적시 2루타를 친 후 질주하고 있다.

탈하기 전까지 37경기에서 wRC+

(Weighted Runs Created · 조정 득점) 83을 기록하는 등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올해에는 wRC+ 159를 작성하며 성장한 모습을 자랑했다. 2024시즌 이정후가 37경기에서 때려낸 장타는 6개 뿐이었지만, 올해에는 28경기에서 16개의 장타를 쳤다”며 “최적의 발사 각도로 장타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MLB닷컴은 “이정후는 KBO리그에서 ‘2루타 머신’이었고, 빅리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 2루타 11개로 공동 1위”라며 “이정후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공을 타격한다. 헛스윙 비율이 13.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시즌은 이정후에게 기억에 남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어깨 부상을 당해 시즌을 조기 마감한 이정후는 올 시즌 연일 맹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28일 까지 28경기에서 타율 0.324(108타수 35안타) 3홈런 16타점 3도루 22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929를 작성했다. /뉴시스



챔피언 진출 확정에 환호하는 LG 선수들 28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울산 현대모비스와 창원 LG의 3차전에서 76-74로 승리한 LG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체육중 ‘전국사격대회’ 금2·동1

여중부 소총단체전·남중부 권총개인 금메달



광주체육중학교 사격부가 지난 21~27일 경남 창원시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여자중등부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 출전한 김태이(3학년)·정아름·정아영·박은서(이상 2학년) 학생은 함께 1857점의 기록으로 충북 보은여중을 0.6점 앞서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중등부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 출전한 박범한(2학년) 학생은 본선 경기에서 561점의 기록으로 최종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 235.7점을 쏘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남자중등부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는 장유훈(3학년)·전승민·이주원(이상 2학년) 학생이 1천837점으로 경기도 한광중, 서울 동원중에 이어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광주체육중학교 이준재 교장은 “비좁고 열악한 운동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훈련해 큰 결실을 맺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면서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메이저대회 준우승’ 김효주 여자골프 세계랭킹 7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에서 준우승한 김효주가 세계랭킹 7위에 올랐다.

29일(한국 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김효주는 지난주 13위에서 6계단 오른 7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지난 28일 끝난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했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사이고 마오(일본), 인휘닝(중국) 등과 동타를 이뤘던 연장전에 돌입했으나,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효주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세계랭킹 톱10에 진입했다. 세브론 챔피언십 공동 6위에 오른 고진영은 지난주 11위에서 3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다.

길어지는 부상...손흥민, 유로파 4강 1차전도 ‘아슬아슬’

토트넘, 오는 2일 보되와 UEL 4강 준결승 1차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캡틴’ 손흥민의 부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4강 1차전 출전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28일(한국 시간) 리버풀과의 2024~2025시즌 EPL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5로 대패한 뒤 영국 BBC를 통해 “손흥민이 UEL 1차전

에 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슬아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전은 못 될 수 있지만, 2차전은 준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오는 5월2일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 2024~2025시즌 UEL 4강 1차전을 치른다.

UEL 우승은 이번 시즌 최악의 행보를 걷는 토트넘엔 무관을 탈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다.

EPL에선 16위(11승 4무 1패)·승

점 37)에 처져 있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리그컵(카라바오컵)은 일찌감치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인 손흥민의 부제는 커다란 변수다. 손흥민은 지난 13일 올버햄튼과의 EPL 32라운드부터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경미한 발 부상을 입었다. 조심하려고 한다”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결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손흥민은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했지만, 프랑크푸르트(독일)와 UEL 8강 2차전 원정 경기도 건너뛰었다.

이후 손흥민은 노팅엄과 33라운드, 리버풀과 34라운드에서도 출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발 부상으로 공식전 4경기에 결장한 손흥민의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되와의 UEL 1차전 출전에 대해서도 “아슬아슬”하다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결장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식전 43경기에 출전해 11골 12도움을 기록 중이다.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